

이해찬 등판론... 민주 당권구도 잡히나

다음주 입장 발표...출마시 김부겸 등 친문 후보 거취 영향

최재성·김진표·전해철 출마 촉각...이종걸·박영선 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한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권 경쟁구도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3일 일부 언론은 '이 의원이 오는 5일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주변에선 "내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당내에선 중진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의 등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휘말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 속

에 이 의원의 결심이 설 경우 다른 친문(친문재인) 후보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3일 "이 의원과 김 장관이 동시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의원의 출마로 김 장관이 전대에 안 나오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 출마 입장을 밝힌 안민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김부겸 장관은 실질적으로 출마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워낙 당의 어른이시고 친노, 친문의 가장 좌장이시니 이분이 출마하게 되면 아마 절반, 그 이상이 겹거나 아니면 거취를 새로 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심은 친문계의 김진표(4선)·최재성(4선)·전해철(재선) 의원의 출마 및 후보 단일화 여부로 옮겨가고 갈 전망이다.

친문 그룹으로 묶이는 의원들이 최근 '부영이 모임' 차원의 점심 회동을 하며 당 대표 역할론, 후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친문 대표주자' 정리 문제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최 의원과 전 의원은 조만간 만나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인터넷 언론 뉴비씨의 팟캐스트에서 "(최 의원과 전, 두 사람이 동시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다만 최 의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이해찬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 전 의원과 최 의원은 선배한테 도전장을 던지는 모양새가 돼 출마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그렇지는 않고 (이 의원과 전 사이에) 훨씬 신뢰가 많았다"고 답했다.

386민주화운동 세대와 비당권과 중진으로 분류되는 당대표 후보군의 거취와 후보 단일화 문제도 관심사다. 송영길(4선) 의원과 설현(4선) 의원, 이인영(3선) 의원 등이 전대 출마가 점쳐지는 인사로 꼽힌다. 이 중 설 의원과 이 의원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내보인 이종걸(5선)·김두관(조선) 의원과 당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이석현(6선)·박영선(4선)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달 23일께로 예상되는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5~6명 내외의 당 대표 후보가 도전장을 던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

지지부진 원구성... 산더미 현안

한국당 내홍·상임위 배분 이견...인사청문회 등 산적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지 3일로 일주일 이 됐으나 논의의 성과를 못 내면서 국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제에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및 18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추진하면서 새판짜기를 시도하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도 원내 상황을 꼬이게 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입법부 공백이 지속되면서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전히 구성이 안 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한 차례 10일 추가 요청 가능)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야는 후보 자격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평화당·정의당 '개혁입법연대 서두르자'

평화당 긴급토론회

"개혁벨트 구성 민생법 처리"

개혁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범진보 진영의 연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한 민주평화당이 3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평화당 전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속히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금처럼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낼 순 없다"며 "개혁입법연대를 조속히 구성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연대를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해 공동과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서 연대 구성에 자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문재인 정부는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이뤄내지 못한 식물정부였다"고 주장하고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개혁정치 세력이 최소 157석을 확보하면서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생겼다"고 말했다.



"개혁입법 힘 모읍시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은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로 가면 개혁할 수 없다"며 "속도 있는 개혁 추진과 원구성 위해서라도 개혁입법연대는 구성되어야 하고, 그래야 촛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민주당의 어정쩡하고, 기회주의적 태도가 개혁입법연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연대를 통해 과반이 넘는 개혁 벨트를 만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견인해 개혁입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개혁입법연대가 결성과 운영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입법과 예산배정의 성과를 보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일단 '김성태 체제' 가닥

일부 중진·잔류파 반발... "다음주 비대위원장 인선 마무리"

자유한국당이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임시 지도체제의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일부 중진의원들과 잔류파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당의 실권을 놓고 계파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지도체제가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서부터 세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빚을 소재들이 산재해 있어 당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당은 3일 오전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 혁신 워크숍'을 열었다. 일각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준비위는 소속 의원은 물론 각계각층 추천을 받아 40여명의 비대위원장 후보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5~6배수로 압축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평화당 8월 전대 '1인 1표제'로

당내 이견 여전... 오늘 연석회의서 최종 결정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일 회의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5 전당대회 투표방식으로 당원 1명이 1표만 행사하는 1인 1표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4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 위원 3명이 표결 진행 및 1인1표제 투표 방식에 반발, 퇴장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어 예정대로 4일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대표 후보인 정동영 의원은 '중의 왜

곡'의 맹점을 거론하며 1인1표제를 주장해온 반면, 유성엽·최경환 등 다른 후보들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집단 지도체제에선 1인2표제(2명의 후보를 선택)가 관행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한편, 오는 8월5일 평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한 번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나머지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